

‘Just do it’이든 ‘Think different’든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밑에 깔린 생각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읽어보렴. 그런 감동적인 철학을 말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은 드물어서 안타까운데, 최근에 소개하고 싶은 예시를 하나 발견했어.

‘집반찬연구소’라고 집에서 만든 듯한 다양한 반찬을 배달해주는 스타트업이 있더라. 박종철이라는 젊은 대표가 생각이 깊던데, 이곳의 광고문을 함께 읽어볼까?

5년 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

“음... 무슨 반찬을 만들어야 하나... 메뉴 고민이 가장 힘들지.”

“그럼 식사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려?”

“뭐 이것저것 다 하면 하루에 3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저는 놀랐습니다.

하루 3시간이면, 한 달 90시간.

1년에 1,095시간. 결혼하고 50년이 지나면 무려 6.25년.

‘아~ 가정이 생기면 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사람의 시간만 6년이 넘는구나...’

아내에게 이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다면,

꿈을 꾸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위해,

이 시대의 부모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가진 꿈을 위해,

식사 준비 시간을 좀 더 행복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반찬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집반찬연구소는 여러분께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당신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야.